엠네스티 제3회 공무원인권상 수상한

의정부교도소 김종수 교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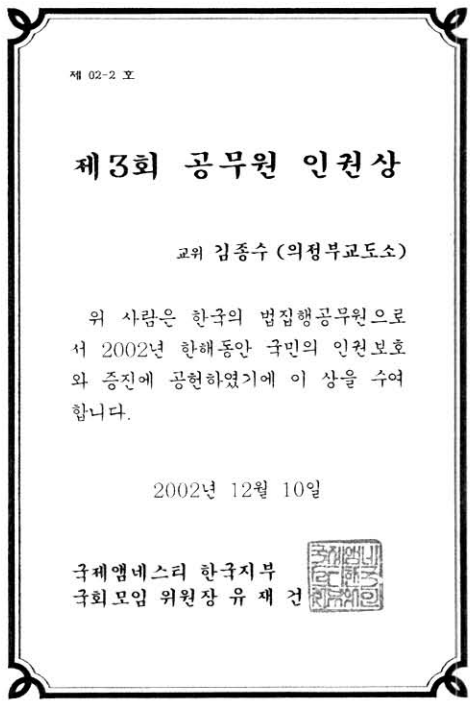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살아남은 인류는 전쟁을 통해 비참한 인권유린을 겪으면서 인간의 권리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세계를 향해 인간의 권리를 선언한다. 이것이 1948년 12월 10일의 '세계인권선언' 이다.

전후 질서 확립 과정에서 승전국들이 이권을 논의하는 장이란 비난을 받는 국제연합이었지만, 세계인권선언은 소중한 인권보호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해마다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열리는 각종 행사 속에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공무원인권상을 시상한다. 한해 경찰, 검찰, 교도관, 보호관찰관 등 법집행공무원 가운데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추천된 후보 중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인권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군림하였음을 지적하고 인권보호에 법집행공무원들이 헌신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엠네스티는 제3회 공무원인권상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의정부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수(47)교위를 선정, 시상하였다. 그의 교도소시설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신장 공로가 인정되어서였다.

한 사회에 대해 알려면 감옥을 들여다보면 될 것이라고 도스도예프스키가 날카롭게 말했듯 감옥의 인권으로 그 사회의 인권을 어림잡아 볼 수 있으리라. 그러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높은 담장 안 재소자들의 인권이 주장되기 시작된 것은, 고대 이집트시절이나 4천년 전 중국에서도 존재했다는 감옥의 기나 긴 역사 속에서 매우 최근의 일일 뿐이다.



제 02-2 호

제3회 공무원 인권상

교위 김종수 (의정부교도소)

위 사람은 한국의 법집행공무원으로서 2002년 한해동안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공헌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모임 위원장 유 재 건

그동안 양심수에 대한 정치공작이나, 재소자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의 많은 사례들은, 아직도 '재소자의 인권을 지키는 교도관' 을 상상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기에 교도관에게 수여된

인권상의 시상 사유와, 수상자 김종수 교위에 대한 궁금이 더해갔다.

지난 16일 오후에 추적추적 오는 겨울비를 맞으며 찾은 의정부교도소는 뜻밖의 산뜻한 모습이었다. 교도소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장은 밝은 색의 벽화가 그려져 교도소가 주는 어두운 이미지를 퍽이나 누그러뜨려주었다.

마침 찾아간 시간이 4시쯤이었는데 도착하고 곧 긴 싸이렌 소리가 울려나왔다. 4시, 수용자들의 입방을 알리는 것으로 이 시간은 교도관들이 바쁜 시간이라 해서, 이십분 쯤 기다리고 나서야 김종수 교위를 만날 수 있었다.

우선 수상을 축하하며 감회를 물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뭐 한 일이 있다고... 소식은 12월 6일에 들었습니다. 11월 30일에 추천접수가 마감되었구요. 물론 아내와 17살 된 아들은 함께 기뻐해주었습니다. 주위분들도 축하한다고 많이 해주시지만 과분하다고 충고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의 충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웃음으로 겸손히 맞아주고 대답하는 그는 22년 4개월째 의정부교도소에 근무하고 있는 터줏대감이란다. 현재 보안과에 근무하는데 최근까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용도과에서 근무했다. 당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맡으면서 그는 낙후된 교도소 시설이 수용자 인권신장에 장애가 된다고 느끼고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화장실, 따뜻한 물, 깨끗한 방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시설들부터 재소자 교육에 필요한 어학실까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도과에 근무하는 시간동안 교도소안의 많은 것이 서서히 바뀌어 갔다.

"지금은 수용자들의 신상이나 접견, 출정 등을 관리하는 보안과로 왔지만 그전 2년 정도를 용도과에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 시설을 관리, 개발하는 곳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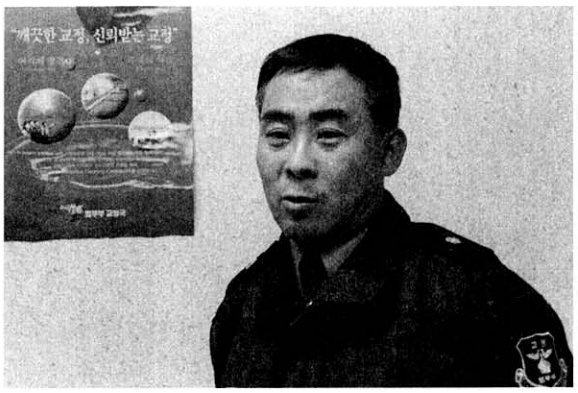
수용자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들을 맡아 하죠. 제가 했던 일은 수용자들의 기초생활에 관련된 시설개선이었습니다. 지어질 당시로서는 좋은 시설이었지만 세월이 지남에도 변하지 못하는 교도소 시설의 개선을 위해 예산을 이쪽으로 확보하고 시설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는 방에 그냥 놓여질 수밖에 없는 신발들을 정리하기 위해 신발장을 제작하고 도배를 새로 하고, 모자라는 화장실과 온수시설을 갖추는 등 예산이 선심성이나 과시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정도였죠. 사람에게는 어디가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현재의 교도소는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을 교정교화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교도소가 형무소란 이름을 버리고 1961년 교도소라 불리게 된 뜻은 교도소에 수용자에 대한 사회화교육의무를 정한 것이다.

이런 맥에서 그가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여러 노력은 교도관이라는 그 말 본디의 뜻부터 충실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이전에도 직업훈련교육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양재나 이발 등 사회와 많이 뒤떨어져 있어 이젠 PC정비사 교육이나 일어와 영어 등 어학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첨단 어학실습실을 마련하였는데 사회 어느 시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수용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



으로 가지고 있는 소양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부라도 제대로 된 재사회화를 위해 미흡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학실습은 현재 3회째인데 매회 60~70명쯤 교육받습니다. TEPS 시험결과 서울대생들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을 타 교도소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천안교도소 같은 경우도 중국어어학실습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노력은 대학특차합격자 4명을 배출하고 영어번역능력 인정시험에 3명을 합격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교도소는 초범들의 주로 입소하기에 더욱 그들을 상습범, 재범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재사회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어학실습실과 함께 그가 자랑삼는 시설로 마약사범재활교육센터가 있다. 마약사범들을 단순히 격리하거나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치료 차원이 아니라 교도소 내에 센터가 있으며 각종 운동 기자재를 설치 운영 중이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기에 대한보디빌딩협회의 이사분이 운동기자재를 기증했고 장소는 법무부의 지원과 함께 마련되었다고 한다.

현재 20여명이 이 센터에서 재활 중이라고 하며 센터에서 교육받은 이들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렇게 시설을 정비하는데 2년간 약 1억여원이 든 셈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헛되지 않은 것 같다.

80을 천수로 보면 20년을 국가에 헌납하고 살아 수명이 짧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된 교도관 생활을 그가 어찌 시작했는지 물었다.

"1980년 8월부터 시작한 교정공무원 생활은 22년 4개월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세월을 이 의정부교도소에서만 보냈으니 이곳의 터줏대감이지요. 현재는 의정부교도소 근처의 관사에서 생활합니다.

22년 전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때, 제대 후 이곳저곳 입사를 위해 시험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합격통지가 온 곳이 여기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참 힘들었지만, 제대 후 갓 입사라, 군대시절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5년 쯤 지나니 이 일이, 이 곳이 몸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느끼고 최선을 다했지요."

교위란 교도관 직급을 표현하는 말인데, 교도, 교사, 교위, 교감 등으로 높은 직급이라고 한다. 그의 22년 교도관 생활에 기억 남는 사람을 물었다.

"1주일 전에 가석방한 장씨는 올해로 41살인데,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하다가 걸려 이곳에 수용되었습니다. 중졸로 낮은 학력이지만 비상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이곳에 수용된 후 새로 설치한 운동실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더니 서울시 주최의 보디빌딩대회까지 나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용자가 외부대회에 나간다는 게 까다롭고 힘든 일인데 제가 함께 애를 썼습니다. 장씨가 그게 고마웠던지 가석방되어 나가면서 장려상 메달을 제게 주고 나가더군요.

예전 80년대 중반에는 소년범들 검정고시반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때 택시강도로 수용되었던 민씨를 만났습니다. 민씨는 검정고시반에 편입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석방된 후 편지가 왔는데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땐 정말 보람이 있었죠."

그에게 현재 교도소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묻자 과밀수용을 꼽는다. 보통 교도소에 천육백에서 이천명 사이의 수용자가 있는데 이를 오백에서 천명미만으로 줄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단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교도소와 교도관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걱정했다.

"교도관들 대부분은 법과 제도가 정하는 바를 지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도관들이 구속된 사람들의 처지를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이들도 있구요. 여건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고 있습니다. 재소자 인권에 대해 제도적으로 미흡해도 교도관들이 열심히 하면 어느 범위까지의 무리는 가능하거든요.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용자들을 대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는 지난 8월까지 새로 들어온 수용자들의 정신교육을 맡고 있었는데, 주 내용이 교도소 내에서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절차를 교육하는 것이었다.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정당하게 고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최근 3명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자인권침해사례를 제소하는 것을 돕기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물론 있지요.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교육받는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시설 관리일을 다시 맡는다면 전문성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하고 싶습니다. 전문강의시설을 갖춘 강의실을 마련하는 등 말입니다. 이제 퇴직이 10년 밖에 안남았어요. 시간이 부족하니 빨리 해야죠."

그의 좌우명은 천직의식이라고 한다. '누가 해도 하는 일, 내가 하자' 생각하며 수용자들 손발이 되도록 늘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그간 교도소에서 벌어졌던 가혹행위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 심하게 몸이 상해 나오는 사람,상습범에게 범죄기술을 배워왔던 사람...그 무수했던 교도소안의 인권유린과 교정무능력 앞에서 수용자와 교도관의 형제애는 아직도 어색하고 사치스러울 뿐이지만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도 왜 형제애를 묻지 못하랴.

형제애로 다가서는 교도관과 인권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규정을 가지고 지켜가는 교도소.

누군가 우리사회의 인권을 묻거든 조용히 교도소로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